

# 중국의 해외 생산 · 공급 거점 다변화와 한 · 중 경쟁력 분석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연구위원  
jhjung@kiep.go.kr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이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유럽팀 선임연구원  
cwlee@kiep.go.kr

**나수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선임연구원  
syna@kiep.go.kr

**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 · 중남미팀 선임연구원  
jokim@kiep.go.kr

**김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hhkim@kiep.go.kr

**이효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hyojinlee@kiep.go.kr

**최재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jhchoi@kiep.go.kr



##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 주요 내용

- ▶ 미·중 간 전략 경쟁 심화와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무역 장벽 우회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직접투자(OFDI), 대외도급공사, 무역 등을 결합하여 구조적으로 해외 생산·공급 네트워크를 확장
  - 중국은 해외 생산거점 및 공급거점, 인프라·네트워크 거점 간 결합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접근과 공급망 통제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
  - 중국의 해외진출은 단순한 생산기지 이전이 아니라, 해외 생산거점을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 접근과 핵심광물·중간재 공급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산업 안전망 강화, 인프라·산업단지·물류네트워크를 연계함으로써 장기적 거점 고착화를 추구하는 다층적 전략으로 진화
- ▶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 진출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개되는 전략적 생산·공급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식하고, 해외 거점을 기능별로 해외 생산거점(제조·조립·가공), 해외 공급거점(자원·중간재·자본재 조달), 인프라·네트워크 거점(EPC, 산업단지, 물류)으로 구분하여 분석
  - 전 세계 211개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아세안·중남미·EU가 중국 해외 전략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식별됨.
- ▶ 거점지역별 한·중 경쟁력을 무역·투자·협력프레임·진출사례·갈등요인 별로 분석한 결과,
  - 아세안에서는 중국의 대규모 자본·공급망 확장 전략과 한국의 기술 중심·선별적 전략이 병존하는 비대칭 경쟁 구조로 고착되고 있음.
  - 중남미에서는 중국이 자원 및 공급망 상류를 선점하며 한국은 구조적 열위에 있음.
  - EU에서는 기술·시장·규범 대응이 혼합된 복합 경쟁이 전개되며, 한국의 상대적 기술 우위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확장은 한국에 대한 경쟁 심화, 공급망 의존 리스크, 자원 확보 제약 등 복합적 도전을 초래하고 있음.
-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글로벌 생산·공급거점 전략의 재구성, 주요 거점지역별 맞춤형 진출 및 협력 전략, 대중국 관계에서 전략적 관리와 선별적 협력을 병행하는 접근으로 한국의 대외경제·산업·공급망 정책 방향을 제언함.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 및 공급망 재편 가속화
  -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시화, 팬데믹 이후 공급망 충격을 계기로, 기존의 효율성 중심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성·회복력·안보·신뢰 중심으로 전환
  - 주요국은 핵심 산업과 전략물자의 공급망을 국가안보 및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인식하며, 해외 생산·조달(공급) 구조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강화
    - 미국·EU·일본 등은 공급망 다변화, 우방국 중심의 생산·조달(friend-shoring), 핵심광물·첨단산업에 대한 전략적 관리 강화 추진
  - 이에 따라 기업의 해외 진출은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벗어나, 시장 접근성, 제도 안정성, 전략적 파트너십을 고려한 거점 재편 방식으로 변화
- 중국의 대응전략 변화: 해외 생산·공급(조달) 네트워크의 구조적 확장
  - 중국은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무역장벽 우회 및 시장 확보를 위해 해외직접투자(OFDI), 대외도급공사(해외 산업단지·인프라 구축 등), 수출입 등을 결합한 방식으로 해외 거점을 다변화
  - 중국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생산기지 이전이 아니라, △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접근, △ 핵심광물·중간재 공급거점 구축을 통한 산업 안전망 강화, △ 인프라·산업단지·물류 네트워크를 통한 장기적 거점 고착화 등 다층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진화
- 이러한 중국의 전략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여 한국의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 증대
  - 중국의 해외 생산·공급거점 확장은 글로벌 산업 경쟁구도와 공급망 구조의 실질적 변화 초래
  - 특히 중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하고, 동일 지역에서 기업 활동이 중첩되는 한국은 중국의 전략적 확장으로 인해 경쟁 심화, 공급망 의존 리스크, 자원 확보 제약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
-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 네트워크 다변화 구조와 작동 메커니즘, 주요 거점지역에서의 전략 전개 및 한국과의 경쟁 관계 등을 분석하여 한국의 대외경제·산업·공급망 정책 수립에 대해 제언
  -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 진출을 단순한 투자 확대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전개되는 전략적 생산·공급 네트워크 구축 과정으로 인식

- 해외거점을 기능별로 해외 생산거점(제조·조립·가공), 해외 공급거점(자원·중간재·자본재 조달) 및 이의 연결·지원 거점(EPC, 산업단지, 물류·인프라)으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결합 구조와 지역별 작동 방식에 초점을 두어 분석
- OFDI, 대외도급공사, 무역·자원조달 관련 다양한 통계를 활용한 계량 분석과 함께, 주요 정책 문건, 산업 전략, 기업 사례 분석으로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여 중국 해외거점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평가
  - 계량 분석 시, 부가가치 기준 무역자료를 활용해 ‘우회 거점’(제3국 허브)도 분석
- 중국의 해외 거점 분포는 전 세계 211개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중요한 3대 거점지역인 아세안, 중남미, EU에서 한·중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 제언
  - 11개 거점지역은, 동북아(8), 아세안(10), 남아시아(8), 중동(15), EU(27), 비EU/CIS(29), 북미(3), 중남미(33), 조세피난처(8), 아프리카(53), 대양주(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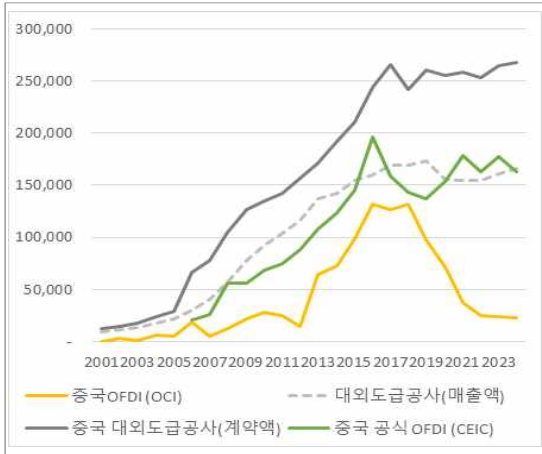
## 2. 조사 및 분석 결과

### 1) 중국 해외진출의 구조적 전환: 직접투자·도급공사·무역의 삼각 연계

- OFDI(해외직접투자)의 질적 변화: ‘기술 습득’에서 ‘공급망 이식’으로의 전환
  - 서방 선진국의 견제로 기술 습득형 M&A가 사실상 봉쇄되자, 중국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여 공급망 자체를 해외에 이식하는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함.
  - 국영기업은 국가 전략과 연계된 자원 개발 및 대형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민영기업은 시장 확보와 무역 장벽 회피를 위한 제조업 거점 구축을 주도하는 이원화 전략을 채택
- 대외도급공사의 전략적 활용: ‘단순 시공’에서 ‘표준 및 네트워크 확산’으로 진화
  - [인프라의 전략 자산화] 단순 토목 공사에서 벗어나 5G 통신망,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신형 인프라’ 건설로 확장하여 중국산 장비와 기술 표준을 확산하는 수단으로 활용
    - 이는 향후 중국 기업의 진출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 모델 고도화] 단순 도급(EPC)에서 벗어나 지분 투자와 운영권 확보를 결합한 ‘투자·건설·운영’ 모델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수익원과 전략적 거점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그림 1. 중국의 OFDI 및 대외도급공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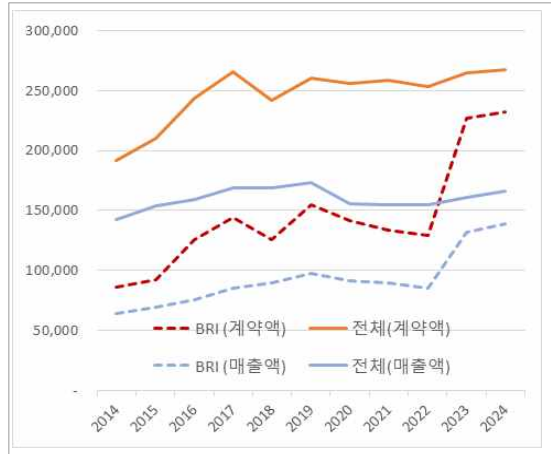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IC, OCI 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일대일로(BRI) 국가에 대한 대외도급공사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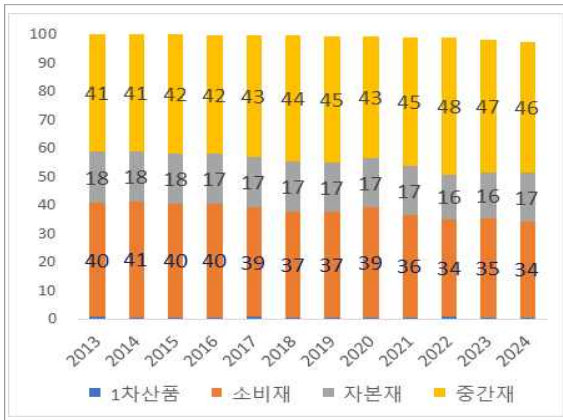
자료: CEIC 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무역 구조 변화: '우회 수출'의 제도화와 중간재 허브 기능 강화

- [우회 수출 메커니즘 고착화]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이후, '중국(중간재) → 제3국(조립·가공) → 미국(최종재)'로 이어지는 삼각 무역 구조가 뚜렷해짐.
  - 멕시코와 베트남의 대미 수출품에 내재된 중국산 부가가치 비중이 급증, 이는 중국이 최종재 생산기지만을 해외로 이전하고, 핵심 소재·부품 공급권은 장악하고 있음을 시사
- [중간재 공급 기지화] 중국의 전체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며, 중국이 '세계의 공장(최종재 생산국)'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중간재 허브'로 변모 중

그림 1. 중국 수출 품목 성질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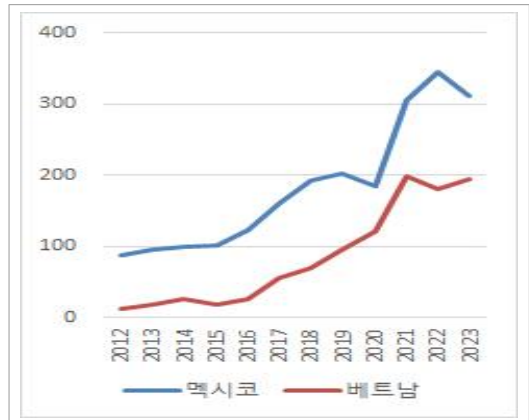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UN Comtrade 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대미국 수출에 내재된 중국 부가가치

(단위: 억 달러)



자료: ADB MRIO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 중국의 해외 거점 유형별 특징

### ① 해외 생산거점: 생산공정의 국제적 재배치

- 중국은 해외 생산거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입지를 재조정하고 중국 본토와 해외 거점 간의 긴밀한 분업 체계를 형성
  - 중국 내에서는 R&D와 핵심부품 생산을, 해외 거점에서는 조립이나 최종 가공을 수행
- 제조업 OFDI(해외생산)와 중간재 수출의 연계성 강화
  - 제조업 투자가 증가한 지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동반 상승하는 뚜렷한 경향 확인
  - 특히 중국의 대아세안 및 멕시코 투자는 현지 완결형 생산보다는 중국산 중간재를 투입하여 완성품을 만드는 수직적 분업 구조가 고착화
  - 이에 공정의 분할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중국에 귀속(중국산 기술 및 중간재)
  - 한편 중국의 제조업 OFDI는 과거 섬유·의류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에서 전자, 자동차, 기계 장비 등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고도화되고 투자 대상국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으로 빠르게 확산
    - 전자/전기 산업은 베트남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조립 공정 이전이 활발
    - 자동차/배터리 산업은 시장 접근성을 고려하여 헝가리(유럽 시장), 태국(아세안 시장), 멕시코(북미 시장) 등에 대규모 생산 거점 구축
- 부가가치 무역 기준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 거점: 멕시코와 베트남
  - 단순한 우회 수출에서 현지 생산 공정의 일부를 수행하는 구조적 통합으로 진화, 미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 최소 공정을 현지에서 수행하고자 현지 투자 확대

### ② 해외 공급거점: 자원 통제와 기술 의존의 병존

- 중국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단순 수입을 넘어, 광산 개발부터 제련, 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직계열화하는 전략을 추진
  - 중국의 광업 OFDI 거점은 자원 부국인 아프리카(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등), 남미(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동남아(인도네시아)에 집중(국가는 다변화)
    - 이는 해당 국가들이 보유한 특정 광물 자원(코발트, 구리, 리튬, 니켈)과 일치
  - 단순한 지분 투자를 넘어 경영권 확보나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 자원의 통제권 확보
    -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이나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에 대한 압도적 지배력

- 중국의 1차금속 제조 OFDI 거점 변화는 자원 가공·제련 시설의 해외 구축을 보여줌.
  - 인도네시아의 원광 수출 금지 정책에 대응하여 중국기업들이 대규모 니켈 제련소를 현지에 건설하면서, 자원 보유국의 자원 민족주의 정책을 우회하는 동시에, 글로벌 니켈 공급망의 중간 단계인 제련 시장을 중국이 장악
- 중국은 광물 수입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 광산개발 병행
- 자원 확보 측면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첨단 자본재 및 일부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선진국 기술 의존도가 높음.
  - 첨단 자본재와 핵심 반도체 부품 등은 여전히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 기술 선진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및 자체 기술 개발을 가속화

### ③ 인프라·네트워크 거점: 중국 표준의 확산

- 중국은 해외도급공사를 통해 물류, 에너지, 통신 인프라·네트워크를 선점하고 있음.
  - 인프라·네트워크 거점은 생산·공급거점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중국 중심 경제권 구축에 기여
- [일대일로의 고도화]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지역에서 항만, 철도, 산업단지를 패키지로 건설하여 물류 거점을 확보하였고, 최근에는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 통신망 및 전자결제 시스템 확산에 주력함.
  - 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네트워크 확장은 중국의 장기적 영향력 확보 수단으로 기능

### ④ 해외 거점 지표 표준화를 통한 중국 해외진출 유형별 거점 국가

- 해외 생산거점(제조, 중간재·자본재 수출), 공급거점(자원·중간재·자본재 조달) 및 인프라·네트워크 거점(대외도급공사) 관련 지표별로 중국의 진출 국가 분포를 표준화(평균과 표준편차 활용)
- 2013~17년 및 2018~24년의 표준화값 변화가 高→高국가는 중국 해외진출의 핵심 거점국가, 中→高국가는 부상 국가

표 1. 중국의 해외진출 유형별 거점 국가

지역	해외 생산거점		해외 공급거점		인프라·네트워크(대외도급공사)	
	핵심	부상	핵심	부상	핵심	부상
동북아	(홍콩)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대만, 한국, 일본, (홍콩)	-	(홍콩)	-
아세안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라오스	필리핀
남아시아	인도	인도	인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UAE
EU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프랑스	-	-	-
비EU/CIS	-	러시아	-	러시아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북미	미국		미국		-	-
중남미	-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브라질, 칠레, 페루, 멕시코	페루, 브라질, 칠레, 멕시코	-	페루, 멕시코
아프리카	-	알제리, 나이지리아, 이집트	남아공	짐바브웨, 카메룬, DR콩고, 남아공, 기니	알제리, 나이지리아	
대양주	-	호주	호주	호주	-	호주

주: 회색 글자는 중간재/자본재 네트워크를 표시.  
 자료: 저자 작성.

### 3) 주요 거점지역별 한중 경쟁력 분석

#### ① 아세안: 종합적 전략 거점에서의 비대칭 경쟁

- 아세안은 한·중 모두에게 핵심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최대 전략 거점으로, 생산·중간재·신산업 전반에서의 비대칭 경쟁 구조가 형성
  - 중국은 아세안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제조·공급·물류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음.
  - 한국 역시 아세안을 주요 생산거점으로 활용해 왔으나, 전략 범위와 투입 규모 측면에서 중국 보다 작으며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양적 비대칭성] 투자 규모 및 산업 범위 측면의 경쟁력 비교
  -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 건설, 포괄적 경제협력(RCEP, ACFTA 고도화)을 활용하여 아세안 전반에 광범위한 산업 투자를 전개함.

-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전자·전기 등 신산업과 전통제조업을 포괄하는 폭넓은 산업 진출이 이루어졌으며, 신산업 분야에서 원자재 가공부터 제조까지 연계된 생산체계를 현지에서 구축
- 한국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산업에 투자가 집중된 구조로,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 규모와 산업 범위가 중국보다 작음.
- 이로 인해 아세안 전체를 포괄하는 네트워크 경쟁력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함.
- 전기차/배터리 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은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허브로 아세안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중간재 및 공급망 내 지위 경쟁

-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중간재의 점유율이 급상승하였으며, 중국은 가격뿐 아니라 품질 경쟁력 향상을 통해 시장 지배를 강화하고 있음.
- 한국은 일부 핵심 부품 및 고부가 중간재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제한적
- 중간재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한국 기업의 현지 공급망 내 입지의 약화를 초래

- [종합 평가] 아세안에서는 중국의 규모·자본·공급망 확장 전략과 한국의 기술 중심·선별적 전략이 병존하는 비대칭 경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경쟁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음.

## ② 중남미: 자원·지정학 거점에서의 구조적 열위

- 중남미는 핵심 광물 공급처이자 전략적 지정학 공간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경쟁은 제조업보다는 자원 확보와 공급망 상류 통제력을 중심으로 전개됨.

### ● 자원 확보 전략의 차이

- 중국은 국유기업과 국책금융을 활용하여 브라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의 광산 지분 인수, 장기 구매 계약, 현지 가공시설 투자 등을 병행함.
- 자원 개발과 철도·항만·전력 등 인프라 투자를 연계하여 자원 공급망을 수직 계열화하고 공급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한국은 개별 기업 중심의 자원 투자 또는 단순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자원 접근성 및 협상력 측면에서 한·중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발생함.

### ● 지정학 및 제도 환경 대응 역량

- 중국은 중남미 국가들과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함.
- 한국은 외교·산업·자원 전략 간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함.

-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 측면에서도 중국이 상대 우위에 있음.
  - 제조업 우회 진출 측면에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활용한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멕시코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함(자동차 부품, 가전, 가구 등).
  - 한국 기업(기아, 삼성전자 등)도 진출해 있으나, 중국의 진출 속도가 매우 빠름.

● [종합 평가] 중남미에서 중국은 자원 및 공급망 상류를 선점하고 있어, 장기적 공급망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은 구조적으로 열위임.

### ③ EU: 기술·시장·규범이 중첩된 복합 경쟁

● EU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자 고부가가치 소비시장인 동시에 글로벌 산업·통상 규범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한·중 경쟁은 단순 생산 경쟁을 넘어 기술, 제도, 규범 대응 능력을 포함하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됨.

#### ● 첨단 제조업 경쟁력: 배터리 전쟁

- 한국 기업은 배터리, 전자, 일부 기계·소재 분야에서 기술력과 품질 신뢰도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중국 기업은 초기에는 시장 접근을 중심으로 제한적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생산거점 구축을 통해 본격적으로 경쟁에 참여하고 있음.
- 특히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 배터리 3사(LG, SK, 삼성)가 동유럽(폴란드, 헝가리)에 선제적으로 거점을 구축했으나, 최근 CATL, BYD, EVE에너지 등 중국 기업들이 헝가리, 독일 등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 한국의 선점 효과가 점차 줄어드는 조짐이 나타남.

#### ● 통상 규범 및 제도 대응 역량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공급망 실사 지침 등에 따른 환경·공급망·투자 규제는 중국 기업에 상당한 제약 요소로 작용함.
- 그러나 해당 규범들은 한국 기업에게도 상당한 제약을 부과하고 있어, 규범 대응 역량이 EU 내 경쟁력 유지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

● [종합 평가] EU에서는 한국이 기술·신뢰도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추격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쟁 구도는 시장 점유율 경쟁, 기술 경쟁, 규범 대응 경쟁이 중첩된 복합 경쟁 구조임.

### 3. 정책 제언

#### 1) 글로벌 생산·공급거점 전략의 전면적 재구성

- 기존의 특정 국가 또는 단일 지역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글로벌 차원에서 생산과 공급을 최적 조합하는 네트워크형 전략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글로벌 공급망 모니터링 및 조기 대응 체계 구축
  - 중국의 해외 생산·공급거점 확장, 제3국 우회 진출, 인프라 연계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 병목 가능성, 대체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공급망 조정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여 정책 대응의 속도를 극대화
- 우회 거점의 전략적 활용과 리스크 관리 병행
  - 중국 기업이 우회 생산기지로 활용 중인 베트남, 멕시코, 중동부 유럽 일부 국가를 한국의 대미·대EU 수출 전략에 활용할 필요
  - 강화되는 원산지 규정과 공급망 실사 요구 등에 대응하여 현지 조달 비중 확대, 공급망 투명성 제고가 병행되어야 함.
  - 우회 거점 활용 과정에서 통상·규범 리스크를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함.

#### 2) 주요 거점지역별 맞춤형 진출 및 협력 방안

- 아세안: 생산거점 다변화와 패키지형 협력 전략 강화
  - 한·중이 가장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핵심지역으로, 국가별·산업별 맞춤형 전략 필요
  - 베트남 중심의 기존 생산 네트워크를 인도네시아 등으로 단계적으로 다변화하고, 단순 제조 투자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금융·기술·인력·인프라를 결합한 독자적인 한국형 패키지 협력 모델 필요
  - 디지털 전환, 스마트시티, 친환경 에너지 등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면서, 아세안 내 기술 표준 및 제도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
- 중남미: 자원-산업 연계형 협력과 니어쇼어링 활용
  - 중남미는 핵심자원 확보와 북미시장 연계 측면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했으므로, 기존의

단순 자원 수입 구조에서 벗어나, 현지 가공·정제 및 산업 연계를 통한 상생형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

- 이는 중국의 대규모 자원 확보 중심 전략과 차별화되는 접근으로, 중남미 국가의 산업화 수요에도 부합

- 멕시코 등 북미 인접국을 중심으로 니어쇼어링 전략을 강화하여 북미 시장 접근성을 제고
- 기술 집약적 인프라, 전자정부, 교통·물류 시스템 등 한국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

#### ● EU: 기술 동맹 강화와 규범 대응 역량 제고

- EU는 고부가가치 시장이자 글로벌 규범 형성의 중심지로, 전략적 협력 대상임.
- EU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공동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중동부 유럽에 구축된 기존 생산거점을 단순 제조 기능에서 연구개발 및 물류 거점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
- EU의 환경·공급망·통상 규범에 대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기업의 제도 적합성과 신뢰도를 적극 강조

### 3) 대중국 전략에 대한 제언

#### ● 전략적 관리와 선별적 협력의 병행

- 안보 및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의 공급망 조정
- 범용재 및 비전략 분야에서는 상호 의존 관계임을 감안하여 안정적 교역을 유지하는 유연한 접근이 요구됨.
- 제3국 시장에서는 경쟁과 협력을 구분하여, 선택적 협력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검토 및 활용

#### ● 한국형 차별화 전략 강화

- 글로벌 시장에서 확산되는 중국 리스크에 대응하여 한국 기업의 신뢰성, 안정성, 기술력을 핵심 경쟁 요소로 강조
- 개발 협력 분야에서는 투명성, 지속가능성, 제도 신뢰를 강조하는 한국형 협력 모델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관계를 확대 **KIEP**